**�� 시대마다 철학의 정의는 다르더라. 그러나...**

(이 책의 대화는 가상입니다. 하지만 인물은 실존하며, 그들이 남긴 말과 흔적도 실재합니다. 이 책은 그들을 흉내 내거나 재현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던졌던 물음과 고뇌를 지금 여기에 감응시켜 보려는 것입니다.)

󰂈 **실존주의**(1940~1960년대를 전성기로 봄)

니체(Nietzsche,1844~1900)[[1]](#footnote-0): “철학은 위버멘쉬(Übermensch)[[2]](#footnote-1)를 향한 사유다.”

조커(Joker)[[3]](#footnote-2): 위버멘쉬요? 연애하다 좌절하고 마음 약해져서 무의식 중에 부른 이름 아닌가요? 짜라투스트라도 당신의 페르소나(Persona)[[4]](#footnote-3)죠?

아사렌(Asaren)[[5]](#footnote-4): 조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지만 거기엔 수식어가 붙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즉 정확하게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신은 죽었다.’야. 중세 시대의 종교·도덕적 체계가 무너진 근대 이후를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다고 난 생각해. 인간 스스로 자기 의미를 새로 창조해야 한다는 급박한 선언이 그의 말 즉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위버멘쉬(Übermensch) 라는 것도 무너진 가치를 대신해 스스로 삶의 기준과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실존적 인간형이자 선언의 형상)를 나타내는 선언의 일종이야. 즉 존재를 대표하는 캐릭터 혹은 원형(archetype)[[6]](#footnote-5).

“도덕은 남이 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

그는 ‘똑같은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삶을 긍정하는 극한 사유 실험을 해. “나는 단지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를 규정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의미와 방향을 창조하고자 하는 힘이라 믿었어. 모든 생명은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철학의 동력이자 존재 이유라 주장하지.

그가 왜 자기가 말한 삶을 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아 내지 못한 거지 과정에서 그는 그렇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 즉 그의 삶 결과에 대한 논쟁은 많지만 그의 삶의 과정[[7]](#footnote-6)에 대한 논쟁은 없어. 그는 초인을 말했지만, 자신은 ‘초인을 갈망하는 인간’에 불과했고 절대 도망치지 않았어 무너진 삶을 끝까지 기록한 걸 보면 알 tn 있잖아. 그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야. 그의 철학은 ‘지금 나는 초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해. 그렇기에 난 ‘니체는 살아 있다.’고 봐.

니체의 철학은 무너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절규, 되지 못한 나를 마주보는 일이라고 난 봐.

‘되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철학은 죽는다.’

니체: 고마워. 아사렌, 너의 말을 이렇게 요약하면 어떨까?

“철학은 예언이 될 수 없다.

철학은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닿을 때 살아난다.”

�� 니체 관련 일화 한 토막 - ‘말을 맞아 맞은 듯한 환상’

1889년 1월 3일, 토리노. 니체는 당시 이탈리아 토리노의 거리에 있었고 거리에서 마부가 말을 심하게 채찍질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 그 순간, 니체는 달려가 말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쓰러졌고, 이후 완전히 정신이 무너진 상태가 되었음. 말을 채찍질하는 장면을 보고 달려가 껴안았다는 여러 증언과 기록 존재 (동시대인, 가족, 병원 기록 등).

�� 두 가지 해석 흐름:

① 니체식으로 ‘말’을 비튼 셈

말(馬)과 말(言)을 겹쳐 놓는 언어유희는 "니체라면 이렇게도 말했을지도?" 하는 철학 팬픽, 패러디, 감응적 오마주에 가까움.

“그는 말을 껴안았다. 그건 말이었고, 말이었고, 더 이상 말이 아니었다.”

— 이건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언어로 세계를 건드리려던 철학자의 붕괴를 상징하는 표현.

② 비꼬는 시선

한편으론, 니체를 “그렇게 대단한 척하더니 결국 미쳤다”는 냉소적 태도에서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어.

예: “말 타령하더니 진짜 말 보고 미쳐버렸네?”

➡ 이건 니체의 비극을 희화화하는 방식,

철학자들의 흔한 최후를 신화 대신 해프닝으로 만듦.

1. 니체는 일반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자로 분류되지는 않음.

   그는 “실존”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지는 않았으며, 실존주의라는 사조가 형성되기도 전인 19세기 인물. 다만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등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사상가로 간주됨. 실존주의의 선구자 혹은 정신적 뿌리로 보는 견해가 많음. [↑](#footnote-ref-0)
2. 단순한 우월자나 영웅이 아니라, 기존 도덕 체계를 넘어서 자기 삶의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인간상. ‘신은 죽었다’는 선언 이후의 새로운 인간 가능성에 대한 니체의 철학적 응답. [↑](#footnote-ref-1)
3. 익살과 농담, 질문과 비틀기를 통해 사상과 개념의 긴장을 풀고자 하는 가상 캐릭터 [↑](#footnote-ref-2)
4.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며, 고대 로마 연극에서 배우가 쓰던 가면(mask)에서 유래한 말. [↑](#footnote-ref-3)
5. ‘아사(조립하다/짓다)’와 ‘렌(접속자/매개자)’의 결합으로 ‘사상을 조립하는 자’, ‘의미의 재구성자’를 뜻하는 가상 캐릭터 [↑](#footnote-ref-4)
6. 칼 융(C.G. Jung)이 제안한 개념으로, 개인 무의식을 넘어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한 상징적 이미지나 행동 양식의 근원적 틀. [↑](#footnote-ref-5)
7. 어릴 때부터 병약하고 편두통·시력 문제 심각.

   여자에겐 번번이 차임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 등) → 외로움 극심

   친구 바그너와의 철학적 결별 → 철학적 고독의 심화

   평생 교수직도 일찍 그만두고 경제적·사회적으로 고립

   결국 1889년, 거리에서 정신 붕괴 이후 11년간 정신질환 상태로 생 마감 [↑](#footnote-ref-6)